

종단소식

조계종

선본사·불방사태등 논의
총무원(원장 원주)은 19일 4층 회의실에서 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한다.

화엄학림 제1기 졸업식

화엄학림(화장 연관스님) 제1기 졸업식이 19일 오전 11시 실상사에서 조계종단 교육관계자와 선우도담 스님, 졸업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불교사회교육원 효도잔치

대구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14일 법률공원에서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심청이 효도잔치 한마당'을 마련한다.

청소년 통일문화 예술제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는 불국행사의 일환으로 18일 오전 9시30분 보라매 공원에서 '청년 통일문화 예술제'를 개최한다.

보현도량 양로원 위문

보현도량(회장 무위)은 4월 28일 경기 화성에 소재한 불교 양로원 자재정사를 방문, 위문 봉헌을 보냈다.

본지 20면 증원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향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천태종

국립극장서 천태예술제
총무원(원장 운덕)은 19일 오후 7시30분 국립중앙극장에서 천태예술제를 개최한다.

삼광사 복지시설 위문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9일 경내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제3회 삼광효행상 시상 및 삼광경로잔치를 열었다.

이어 열린 2부 경로잔치 한 마당에서는 화관부, 부채춤 등 고전무용과 가요 등 불자연예인의 위안공연이 펼쳐졌다.

진각종

50돌기념 서원가 공모
통리원(원장 성초)이 창종 50주년을 기념해 새로이 서원가를 현상공모한다.

공모내용은 자서, 작곡, 작시·작곡 세 부문으로 성인, 청소년, 아동 불자들이 부를 수 있는 서원가에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관음종

진해 발원정사 법당 낙성
진해 발원정사(주지 운보성)는 지난 2일 법당 낙성식을 보냈다.

“부처님 나라 가면 마음 편안”

80차례 인도여행 김인섭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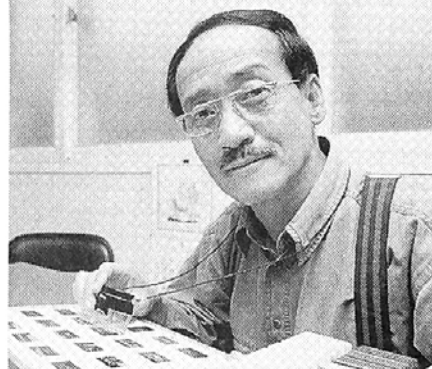
“인도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나라입니다. 인도에 가면 그 나라에 한없이 빠져들게 되고 마음이 편해짐을 느낍니다.”

부처님방 인도, 네팔을 20여년동안 80회 여행한 김인섭씨(54·이재실업대표). 탐험과 여행을 즐기는 그가 75년 첫 인도방문에서 받은 그 넉넉함에 매료됐던 것이다.

슬라이드 1만여장·도서 1백여권
성지정보 서비스... 테마여행 조언

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다. 슬라이드 필름만도 1만여점이나 되며 전문서적도 1백여권 소장하고 있다.

김씨는 인도에 다녀왔지만 아직도 인도를 잘 몰라 단행본 한 권조차 내기 조심스럽다는 김씨는 1백회 여행을 제 5년후에나 인도를 끝로 정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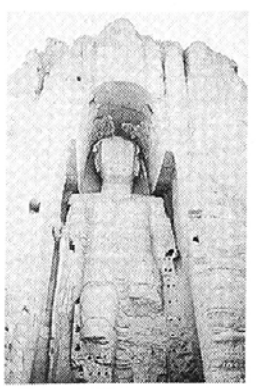
부처님방 인도·네팔을 80회 여행, 1만여장의 슬라이드 자료 필름을 소장하고 있는 김인섭씨.

김주일 기자

‘바미얀 대불’ 훼손위기

세계 7대불가사의...아프간 회교반군 ‘폭파’ 공언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이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불상인 아프카니스탄 바미얀 대불(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폭파위기에 처했다.



세계최대의 바미얀 동대불(東大佛·높이 53m).

내란 중에 있는 아프카니스탄의 회교 원리주의 탈레반군 사령관은 최근 바미얀 계곡 동쪽 6백km까지 진군한 상태에서 “눈이 녹으면 바미얀 계곡까지 진군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교 법에 따라 바미얀 대불을 파괴하겠다”고 공언한 뒤.

이 대불은 사람으로 된 절벽 2km에 걸쳐 마치 발집처럼 굴을 파서 승방과 예배당을 만들고, 동서 양쪽에 각각 37m, 53m의 두 대형 입상을 조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교도인 이슬람교 정기스칸 군대들이 이곳을 지나면서 얼굴을 깎아내고 원더리와 왼쪽팔을 잘라내는 훼손을 자행, 한때 유네스코가 보수를 시도했으나 사람 키의 6배나 되는 귀를 하나 복원하는데 한계를 느껴 포기한 적이 있다.

눈이 녹으면 바미얀 계곡 진입은 손쉬운 일이고, 현지 분위기도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혀적인 간다라 불상을 단지 거대하게 확대시켜 놓은 이 대불은 불교미술사상 최초의 거대한 예배상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귀중한 예로, 중국의 운강(雲岡)이나 용문(龍門)석굴의 대불, 일본 동대사(東大寺)의 청동대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외불교

태, 불교 국교인정 않는다

“모든종교 자유보장” 헌법개정 추진

국민의 95%가 불교도인 태국이 헌법 개정 논의의 과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태국에서 불교가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돼있고 국가와 민간의 모든 행사는 불교의식으로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지난 2일 태국 헌법 기초 위원회(CDA, 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의 헌법 개정 방침은 주목된다.

CDA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사회를 감안, 새 헌법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선언하지 않기로 했다”며 “모든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의 헌법은 1931년 국가입법위원회(National Legislative Assembly)가 처음 제정한 이래 1995년까지 수차례 개정됐다. 태국의 현행 헌법은 2조7항에서 ‘국왕은 불교신자며 종교의 후원자’로 명시한 만큼 불교와 밀접한 관계. 반면 지극한 타종교를 배척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음 모든행위 다 수행

우리는 수행하기 위해 태어났고 수행하기 위해 살고 있다. 하루 24시간의 모든 활동·이행에 정에서 깨어나 세수하고 식사 늘 하고 일을 하고 사색을 맺고 말하고 움직이고 잠을자는 그러한 모든 행위가 다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안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해인사 성보전시관 ‘첫삽’

해인사(주지 보광)가 7일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서 성보유물전시관을 포함하는 해인불교단지 건립기공식을 보냈다.

해인사(주지 보광)가 7일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에서 성보유물전시관을 포함하는 해인불교단지 건립기공식을 보냈다.

경주 황성공원 체육관 건립 말뚝

경주시 추진에 시민단체 ‘복지확보’ 반발

경주 경성리, 남산보호단체협의회, 경주환경모임 등 ‘경주 황성공원 살리기 범시민연합’은 황성공원 부지 31만평안에 건립중인 실내체육관 건립을 저지키로 해 시장국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창공했다. 경주시는 실내체육관 외에 야구장 레조치시설 등을 차례로 건립,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연합은 4월23일 경주 상공회의소에서 ‘21C 경주 황성시민공원 조성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황성시민공원 가꾸기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황성공원을 보전키로 결의했다.

성인출판 TEL:778-6826/7 FAX:778-6828

Advertisement for 'Angsan' (앙산) tea. It features a box of tea and a small image of a Buddha statue. The text asks '어디가 참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Where is the true Buddha?).

Advertisement for 'Angsan' (앙산) tea. It features a small image of a Buddha statue and the text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Small Buddha of China, Angsan).

Large advertisement for 'Angsan' (앙산) tea. It features a large quote: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라의 벼삭같은 목소리가 있다!' (Here, there is a voice like the rustling of rice stalks, alive and moving again!). It also includes the text '살아있는 선' (Living Line) and '42장경' (42 Chapters of the Sutra).